

## 문화향유의 관점에서 본 번스 나잇의 전승 양상\*

진혜인 \*\*·안남일 \*\*\*

### -차 례-

1. 들어가는 말
2. 번스 나잇의 개요
3. 번스 나잇에 나타난 문화적 의미의 소비재
  - 3.1. 전통의상 킬트
  - 3.2. 전통증류주 위스키
  - 3.3. 번스 나잇의 디드로효과
4. 번스 나잇의 의미와 전승 양상
5. 나오는말

---

\* 이 논문은 2019년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을 통해 해외한국학중핵대학육성사업의 지원(3차년도)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AKS-2019-OLU-2250002). 2022년 제21차 중·동유럽한국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논문임.

\*\* 고려대학교 대학원 문화콘텐츠학 박사수료, hyeinjin@korea.ac.kr

\*\*\* 교신저자,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문화스포츠대학 문화창의학부 문화콘텐츠전공 교수, macani@korea.ac.kr

##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문화향유의 측면에서 번스 나잇이 어떻게 소비되고 그 맥을 이어왔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번스 나잇은 스코틀랜드의 낭만시인 로버트 번스의 시와 함께 그를 기억하고 자축하는 시간이다. 번스 나잇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통의상인 킬트(kilt)이다. 이는 집단의 통합과 정체성 형성을 목적으로 형성되었으며, 친족 제도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통악기인 백파이프 연주로 시작되어 전통음식인 하기스와 전통주류인 위스키와 함께 그의 시를 낭송하고 노래한다. 위스키는 잉글랜드의 지배를 받던 시기에도 저항의 상징으로 소비되었는데, 그 중심에 번스가 있었다. 번스의 초상 이미지는 스코틀랜드를 대표하며 문화적 브랜드를 넘어 스토리텔링의 소재로 활용된다. 민족적 정체성과 연대 의식을 활용해 전통에서 소비의 단계로 이르게 하는 현상을 맥크래켄은 ‘디드로효과’로 연결 지었다. 문화적 연결성에 의해 소비로 이어지는 것은 문화가 소비를 통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족적 정체성을 넘어 문화향유의 하나로 문화적 소비의 가치와 자산으로 확대되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향후 로버트 번스의 문화적 가치에 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전통 관련 상품과 아이콘으로 활용하는 등의 문화콘텐츠 소재 개발 방안까지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로버트 번스, 번스 나잇, 킬트, 위스키 라벨, 문화향유, 문화소비, 디드로효과

## 1. 들어가는 말

영국에서는 매년 1월 25일이 되면 영국 시인, 로버트 번스(Robert Burns, 1759-1796)의 생일을 기념하는 추모식이 거행된다. 이 추모식은 그의 삶과 시를 기념하며 전 세계에 있는 스코틀랜드인 나아가 영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새기는 날이다.

영국인들에게 로버트 번스는 스코틀랜드인의 민족혼과 기백을 지킨 그들의 언어인 켈트어와 전통적 예술을 고수한 일종의 투사로 기억되고 있다. 당시 외부 세력에 대한 저항의 의미를 갖춘 인물로, 오늘날에는 축제일 또는 기념일로 로버트 번스를 소환하며 기억을 자축하는 행사로 소비되고 있다. 영국인들은 지역과 공동체마다 각자의 향수를 달래며 번스 나잇(Burns Night)을 통해 그를 기억한다. 그 기억의 소재는 다양하다. 주류에서 시 낭송에 이르기까지 살아있는 시대의 자축연으로 충분한 가치와 의미를 이어가고 있다.

문화향유 방식의 하나인 문화 소비는 자신을 표현하는 상징처럼 기능하기에 집단 내에서도 연결성과 통일성을 보여준다. 번스 나잇을 통해 그들 스스로 영국인이라는 정체성으로 결집시키고 서로를 연결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영국인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한정할 수 있을까. 영국 내에서도 스코틀랜드와의 독립에 대한 의견은 양분되어 있다. 영문학의 낭만주의 사조에서는 스코틀랜드의 민족성에 대해 논하는 것에 반기를 드는 이들도 있다. 영국과 스코틀랜드를 별개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조의행(2017)은 영국을 이루는 4개의 국가 중 하나인 스코틀랜드가 합병 이후에도 민족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하나의 영국(Great Britain)이라는 국민정체성을 함양해왔으며, 스코틀랜드인들은 민족과 국민의 개념을 구분 짓는다고 보았다. 인종이 다를지라도 영국이라는 하나의 국가에 속해있고 로버트 번스가 전 세계 곳곳의 스코틀랜드인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본 것이다.

이처럼 영국에서는 “번스 나잇”을 독립의 날로 기억하기도 하지만, 그저 한 시인의 생일일 뿐이라고 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번스 나잇은 살아있는 영국의 문화이며 세대와 시대가 소통하는 기억의 자축연

이다. 영국 내 스코틀랜드인의 강인한 저력과 열정을 모색하는데 간과할 수 없는 주요 콘텐츠다.

현재까지 로버트 번스에 관한 국내외 연구는 예술사조인 낭만주의 영문학 발전의 한 줄기로 작품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루었다. 영문학 분야에서 로버트 번스의 낭만주의 창작 시에 관한 연구로 일부 존재한다.

유영숙(2012)은 스코틀랜드 민족시인 로버트 번스의 작품 중 전통 민요시를 개작한 ‘올드 랭 사인(Auld Lang Syne)’의 주제를 분석하고 한국에서 ‘석별의 정’, ‘작별’로 알려져 있으며, 구한말 애국가의 곡조로 차용되었다는 점을 밝히고 번스의 시가 스코틀랜드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과거에 대한 회상과 아쉬움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하지만 그의 연구는 주로 시의 수사법이나 시어의 반복과 같이 분석의 범위가 작품 표현에 한정적이었다. 그러나 영국인들 마음에는 로버트 번스가 단순한 문학 작가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활자에 갇힌 번스가 아닌 생활 속에서 그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그들의 전통으로 남아 그것이 영국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호기심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18세기 이후 약 200년간 지속되어 온 영국인들의 축제이자 기념일인 번스 나잇에는 스코틀랜드 전통의상인 킬트와 전통 증류주인 위스키를 향유하고 소비한다. 전통의상인 킬트는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지만, 그 안에서도 가문의 상징을 보여주는 차별성을 띤다. 송미경(1999)은 스코틀랜드의 전통 의상은 그들의 민족적 정서와 역사를 반영하고 가문과 소속, 국가의 정체성까지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소재로 보았다. 다양한 복식 착용의 스타일과 종류에 관한 연구이기는 하나 참석하는 행사에 따른 복식 구분 정도에 한정되어 가문이나 소속에 따른 계급의 차이를 보여주는 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전통 증류 방식을 고집하는 위스키 역시도 지역적 특색을 보존해 오고 있으며 소비재로서의 특징이 두드러진다. 문화소비의 하나인 소비재에도 그들이 가지는 문화의 고색창연함을 활용하여 구분 짓는다.

부침의 역사 속에서 번스 나잇이 전승되고 있는 양상과 세대를 넘어 계속 소환되고 문화적 브랜드로 소비되고 있는 번스 나잇의 변화와 기억의 현재성에 주목한다. 본고에서는 문화향유 방식의 하나인 문화소

비의 관점으로 번스 나잇이 전승된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단순히 소비의 행위로 직결되는 것을 넘어 민족시인을 기억하기 위한 전통 행사인 번스 나잇을 준비하고 참여하는 과정 전체를 문화향유의 관점에서 문화소비의 하나로 보고, 이를 통해 문화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하나의 문화콘텐츠로서 분석하고자 한다.

## 2. 번스 나잇의 개요

로버트 번스의 노력과 헌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번스 나잇은 번스 서퍼<sup>1)</sup>(Burns Supper)라고 불리기도 한다. 로버트 번스는 낭만주의 시대 영국 스코틀랜드의 대표적인 민족시인이다. 잉글랜드를 대표하는 문호 셰익스피어가 있다면 영국인의 삶을 대변했던 시대적 시인으로서 로버트 번스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당시 영국인들에게 로버트 번스는 오히려 셰익스피어보다 더 유명했다. 18세기 중반, 에딘버러에서 번스의 신작 연극 공연을 마친 뒤 한 관객의 반응<sup>2)</sup>이 기록으로 남아있다.

“Whaur’s yer Wullie Shakespeare noo?”

(“Where is your William Shakespeare now?”)

당시 번스의 인기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현재 로버트 번스의 작품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부족한 현실이다.

매년 1월 25일, 그의 생일을 축하하는 번스 나잇은 스코틀랜드인들에게 제2의 국경일처럼 인식<sup>3)</sup>되고 있다. 실제 공식 국경일인 세인트 앤드류스 데이(Saint Andrew’s Day)보다 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1) 서퍼(supper)는 하루 식사 중 마지막에 먹는 저녁 식사로 정찬인 디너(dinner)보다는 덜 격식을 차린 것이다. 번스 서퍼는 번스 나잇을 일컫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2) 이 연극은 John Home의 ‘Douglas’로 알려져 있다. McClure, J. Derrick, Scots for Shakespeare, in Shakespeare and Scotland, edited by Willey Maley and Andrew Murphy,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04, 218면 참조.

3) [Scotland Days], The Clan Buchanan Society International Official Site

있다. 로버트 번스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문화적 표상으로서의 위상은 정치색과 결합하여 그들의 결속력을 더욱 강화하기도 한다. 그의 인기와 학문적 연구는 번스를 신화적 상징이자 아이콘으로까지 이끌었다.

번스 나잇은 전통악기인 백파이프 연주로 시작을 알리며 하기스<sup>4)</sup>와 와인, 에일 맥주와 함께 그의 작품을 읽고 노래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정찬과 같이 격식을 차리는 것보다 맛있는 하기스와 재치 있는 로버트 번스의 시 읽기, 노래와 음악 그리고 그를 기억하며 건배를 즐기는 것으로 충분하다. 혹자는 이날을 하룻밤 사이의 파티로 치부할지라도 스코트어로 쓰인 시를 낭송하고, 전통 의상을 갖추고 음식과 위스키를 즐긴다는 점에서 그들이 지켜오는 전통적 가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번스 나잇의 장소와 규모는 다양하다. 시내 중심의 광장, The SSE Hydro<sup>5)</sup>와 같은 대규모 행사장에서부터 지역의 커뮤니티 센터나 교회에서 자선행사와 결합하여 열리거나, 주변의 친구와 가족들을 초대해서 가정에서 작은 규모로 열리기도 한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이 자리에 함께하기 위해 의복을 준비하는 것이다. 가문을 상징하는 무늬에 맞춰 새로 구입하기도 하지만 가문에서 가보로 이어온 킬트를 이어받기도 한다. 다만, 입는 사람의 체형에 맞게 전문 재단사에 의해 변형이 필요하고, 복식 구성의 요소들이 세월에 따라 닳았을 경우 새로 구입하기도 한다. 또한, 번스 나잇은 번스를 기념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교의 장이기에 해가 갈수록 미적인 요소를 더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템들을 추가하여 구입한다. 기본 타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다양한 액세서리의 변형은 가능하다.

4) 전통음식 하기스(Haggis)는 양의 내장, 양과 등을 잘게 다진 뒤 오트밀과 함께 양의 위에 넣어 찌낸 음식으로, “Slàinte Mhath(Slanj-a-va/슬런지 바; 게일어로 건강을 기념하는 건배사)”를 외치며 먹는 전통이 있다.

5) 스코틀랜드 글라스고(Glasgow)에 있는 대형 아레나(전시관, 공연장, 경기장으로 사용됨)로, 2021년 10월까지의 The SSE Hydro였으나, 스폰서 업체의 변경으로 이후 OVO Hydro로 명칭을 변경했다.

### 3. 번스 나잇에 나타난 문화적 의미의 소비재

#### 3.1. 전통의상 킬트

번스 나잇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바로 전통의상 킬트(kilt)이다.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킬트의 완전한 전통 착장을 갖추기도 하지만 타탄 체크무늬의 직물로 만든 모자나 넥타이를 걸치는 최소한의 옷차림으로 함께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에릭 홉스봄은 스코틀랜드의 타탄체크의 직물로 만든 킬트는 집단의 통합과 정체성 형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전통<sup>6)</sup>’이라고 말한 바 있다. 킬트는 유럽에서 현재까지 전해지는 국가를 상징하는 의상 중 하나로, 현대 평상복으로 남아있는 유일한 것<sup>7)</sup>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의 민족정체성을 드러낼 때 이러한 도구나 의상을 이용하여 스코틀랜드인의 정체성을 특징적으로 표현한다(송미경 1999)<sup>8)</sup>. 민족적 성격을 드러내는 도구인 전통 의복을 갖추으로써 그들의 스코틀랜드인으로서의 민족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스코틀랜드 전통의상의 복식 구성은 모자, 자켓, 넥타이, 킬트, 킬트핀, 스포란<sup>9)</sup>, 칼, 스타킹, 구두 등으로 복식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가 필요하다. 이처럼 많은 요소가 필요하기에, 정격으로 킬트를 갖춰 입을 경우 상당한 지출을 하게 된다. 전체 의복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에서 £630.00(약 98만 원, 2022년 12월 기준)에서부터 £1,100(약 17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 다만, 장소에 따라 복식을 갖추는 구성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격식을 갖추는 파티의 경우 또는 야회복(evening wear)으로 사용될 때는 모자를 착용하지 않는다. 모자 위에는 부족 배지가 추가되는데 이 장식은 착용자의 신분에 따라 깃털 모양의 장식이 달라진다.

6) 에릭 홉스봄, 박지향, 장문석 역, 『만들어진 전통』, 휴머니스트, 2011(원제 : The Invention of Tradition, 1983)

7) 송미경, 「Scottish kilt의 형태 변화에 관한 역사적 고찰」, 복식 제47권, 1999, 5면.

8) 위의 논문, 10-11면.

9) 스포란은 의상과 함께 착용하는 주머니 모양의 악세서리와 같다.

이는 지위와 관계된 상징적 속성을 드러내는 맥크라켄의 ‘고색’의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타탄의 무늬가 여러 세대에 걸쳐 축적된 명성을 달리하는 가문들끼리의 차이를 보여주며 지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닌 지위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시각적인 지위 증거 역할<sup>10)</sup>을 한다. 맥크라켄은 고색을 통해 특정 계층이 자신들의 지위나 부, 취향을 드러낸다고 보았다. ‘상징체계’, 즉 타탄의 무늬를 통해 그들의 신분이 세대를 걸쳐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sup>11)</sup>가 되는 것이다.

격자무늬의 모직물로 짠 스커트의 형태를 하는 킬트는 타탄 체크의 직물로 만들어지는데, 가문에 따라 타탄의 직물 디자인<sup>12)</sup>이 다르다. 이 타탄은 가문, 즉 씨족(클랜; Clan)을 상징한다. 색깔과 형태에 있어 각 클랜이 가지는 특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타탄은 가문을 구별할 수 있는 상징이다. 스코틀랜드 관광청(Visit Scotland)에 따르면 현재 500개 이상의 클랜이 등록<sup>13)</sup>되어 있는데, 그 수만큼 타탄의 종류도 다양하며 매해 새로운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다. 각 가문을 대표하는 특유의 체크 패턴을 만들어 가문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넘어 서로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했기 때문에, 비록 계급적 구분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류층이 자신을 차별화하기 위해 사용했기에 그 구분이 가능했다. 타탄은 가문의 문장처럼 사용<sup>14)</sup>된 것이다. 이처럼 타탄의 무늬는 고색의 증거이며 전통 의복의 구성 요소로서 세대에 걸쳐 전해오는 가족의 소유물인 것으로 같은 무늬의 킬트를 착용하는 것은 사회적 지위를 재보증해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10) 그랜트 맥크라켄, 이상률 역, 『문화와 소비』, 문예출판사, 1996.

11) 위의 책, 86면.

12) 씨족의 구성원 중 족장과 직계가족을 제외한 사람이 착용하는 씨족 타탄(Clan Tartan), 족장 및 그 직계가족만 착용할 수 있는 칩스 타탄(Chief's Tartan) 그리고 왕족들만 착용 가능한 로얄 타탄(Royal Tartan) 또는 로얄 스튜어트(Royal Stewart)가 있다. 왕가 외부의 사람은 어느 상황에서도 착용이 불가하다.

13) 스코틀랜드 관광청 홈페이지에서는 클랜 찾기(Search a Clan) 섹션에서 ‘Find Your Clan’을 통해 자신의 성(family name) 또는 클랜 명(clan name)을 검색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관광청 홈페이지 <https://clan.com/families> 참조.

14) 양윤경, 「이번 시즌, 핫 아이템 '타탄체크」, 『중앙일보』 2013년 9월 27일(검색일자: 2021년 12월 1일)

한때는 스코틀랜드의 반란으로 여기고 잉글랜드 의회에서 킨트 착용을 금지<sup>15)</sup>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 반감을 가진 이들이 자신들의 민족정체성과 자부심을 드러내기 위해 치장된 전통의상 착용을 과시하기도 했다. 물론, 정치적으로 스코틀랜드의 독립에 관심이 없는 이들에게는 그저 패션의 소재 중 하나로 보일 수도 있다. 실례로 다양한 패션 브랜드 디자이너들이 스코틀랜드 전통의상의 체크 패턴인 ‘타탄’ 체크를 패턴디자인의 모티브로 꾸준히 사용<sup>16)</sup>하고 있다.

1707년 연합법<sup>17)</sup> 이후 그레이트브리튼 연합 왕국이 형성되며 경제면에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차이뿐만 아니라 스코틀랜드 내부에서도 저지대(the Lowlands)와 고지대(the Highlands)의 차이<sup>18)</sup>에 따른 갈등이 있었다. 저지대에서는 종교 개혁을 일찍 수용하고 잉글랜드 지역의 봉건제도를 받아들였기에 유럽식 봉건 질서가 어느 정도 자리 잡았던 것과 달리, 가톨릭을 오랜 기간 지켜 온 고지대에서는 고유의 친족 제도(Clan system)가 오랫동안 유지되어 오고 있다. 그에 따라 스코틀랜드 내부에서도 잉글랜드에 대한 태도가 달리 나타났는데, 고지대는 잉글랜드 왕실이 가톨릭을 고수할 때 잉글랜드와 가까워졌으나, 반면에 저지대는 종교 개혁이 성공한 이후 잉글랜드와 가까워졌다(정병기 2015). 이러한 이유로 같은 스코틀랜드인에게 묻더라도 번스 나잇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 3.2. 전통중류주 위스키

번스 나잇은 번스 서퍼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 자리의 시작은 스코

15) 1746년 컬로든(Culloden) 전투 이후 영국이 스코틀랜드 영토를 점령하게 되면서, ‘복식법(Dress Act)’을 제정하며 스코틀랜드의 전통복장 착용을 금지했다.

16) 영국의 버버리, 비비안 웨스트우드 등 다양한 브랜드에서 패턴디자인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17) Acts of Union 1707로, 1707년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의회의 결정으로 두 왕국이 연합하여 그레이트브리튼(Great Britain) 왕국과 의회를 설립하기로 결의한 법이다.

18) 정병기, 「스코틀랜드의 영국 잔류 선택과 분리 독립 운동의 전망: 복합적 지역주의에 따른 분권적 자치」, 『한국정치연구』 제24집 제1호, 2015, 355-82면.

틀랜드 전통악기인 백파이프 연주이다. 연주가 시작되면 전통음식 하기와스와 위스키를 곁들이며 참석자들은 다 함께 번스의 시를 낭송하거나 노래한다. 격식을 찾기보다는 전통음식 하기와스와 로버트 번스의 시 낭송, 노래와 전통음악 멜로디와 함께 로버트 번스를 기억하며 건배하며 즐기는 것으로 충분하다.

‘스코틀랜드’ 하면 떠오르는 것이 로버트 번스와 더불어 위스키일 것이다. 위스키는 중세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에서 술이 아닌 질병 치료의 목적으로 쓰였다. 이러한 이유로 증류주를 ‘생명의 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위스키(Whisky)의 어원을 살펴보면 고대 켈트어로 “우스게바아(Usquebaugh)”<sup>19)</sup>로 ‘생명수’를 의미한다. 위스키 중에서도 앞에 ‘스카치’라는 명칭의 여부에 따라 품질과 가격이 결정된다.

‘스카치위스키’로 불리기 위해서는 규정된 법에 따라 오크통에서 최소 3년 이상 숙성시켜야만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법적으로도 명칭되어 있는데, 1988년 영국 재무부에서 제정한 ‘스카치위스키’ 법령<sup>20)</sup>에 따라 스코틀랜드 이외에서의 생산이 금지되었다. 또한, 스코틀랜드 내에서 스카치위스키 이외의 위스키 생산을 엄격히 금지<sup>21)</sup>하고 있다. 이렇게 스카치위스키는 현대에 와서는 스코틀랜드를 대표하는 위스키로 자리 잡았지만, 한때는 세금 부과를 피하고자 몰래 숨어서 만들기도 했다. 1707년 영국 연합법이 시행되면서, 잉글랜드와 동일하게 위스키에 주류 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이를 피해 밀조주가 증가했다.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가 합병되며 당시 위스키에 부과되는 세금은 잉글랜드의 지배<sup>22)</sup>를 상징했다. 이에 주세를 내는 것, 즉 구입하는 것은 독

19) 윤덕노, 「원래 약이던 술… 중세까지 고부가가치 의약품 소주·위스키 등 증류주는 모두 생명수」, 『매일경제』 2019년 5월 8일(검색일자: 2021년 12월 1일)

20) Scotch Whisky Act 1988, 1988년에 발의된 조례에 따르면 스코틀랜드의 증류소에서 몰과 발아된 보리로 만들어야 하며, 알코올 농도를 94.8% 이하로 증류해야 한다.

21) Dolan, T. C. S., 「Chapter 2 - Malt whiskies: raw materials and processing」, Editor(s): Inge Russell, Inge Russell, Charles W. Bamforth, Graham G. Stewart, 『Handbook of Alcoholic Beverages, Whisky』, Academic Press, Cambridge, MA, 2003. 27-73면.

22) [로버트 번스, 윈스턴 처칠, 마가렛 대처… 재미있는 위스키 일화], 싱글몰트 맥캘란 공식 블로그,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themacallan&logN>

립에 반하는 것으로 생각해 많은 이들이 저항했다.

밀주를 만들던 시절, 로버트 번스는 그의 시에 ‘위스키’를 시어로 등장시켜 친숙함과 향토애를 자극했고, 시에 곡조를 붙여 노래하기도 했다. 그렇기에 로버트 번스는 저항의 상징이라고도 말하는 것이다. 번스의 위스키에 대한 애정은 그의 작품에서 자주 등장한다. 가난한 시기를 보냈음에도 스코틀랜드의 언어와 일상 등 문화를 기억하고자 했고 그의 의지는 작품에도 드러났다.

1786에 쓴 시 ‘The Author's Earnest Cry and Prayer’의 마지막에는 “Freedom an' Whisky gang thegither<sup>23)</sup>!”라는 구절은 당시 역사 속 억압된 삶을 살았던 스코틀랜드인의 자유에 대한 갈망과 번스의 위스키에 대한 애정이 드러난다. 또한, 1785년에 쓴 ‘The Jolly Beggars’는 그의 생전에는 출판되지 않았다. 이후 작곡가 Sir Henry Bishop(1786-1855)이 번스의 텍스트에 음을 입혀 칸타타로 재탄생시켰다. 이 칸타타 중 ‘And by that dear Kilbaigie’라는 구절이 자주 등장한다. 여기서 ‘Kilbaigie’는 위스키를 의미하는데, 자세히는 1777년 James Stein에 의해 설립된 위스키 양조장의 이름이다. 강한 향의 위스키이지만 품질보다는 높은 도수로 그가 즐겼다고 한다.

현재도 많은 위스키 생산업자들이 그의 탄생일에 맞춰 새로운 종류의 주류를 출시하고 라벨과 이미지를 포함하는 위스키의 디자인에 그의 이름을 끊임없이 등장시킨다.

---

o=220316208389&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검색 일자: 2021년 11월 2일)

23) Freedom and Whisky ‘go together’의 스코틀랜드 방언 표기이다.



<그림 1> 번스의 초상을 위스키 라벨에 활용한 사례

출처: Arran Whisky 홈페이지, Whiskybase 홈페이지, Matt on Malt 홈페이지(사진 순)

이처럼 전통 증류주인 위스키의 마케팅 차원의 브랜드 형성으로 전통이라는 틀에 갇혀 있지 않고 끊임없는 시도를 통해 대중화를 이룩하고, 위스키 라벨 브랜드의 활용으로 번스 나잇을 기억하고 문화적 의미를 담은 소비재로 활용하고 있다.

### 3.3. 번스 나잇의 디드로효과

로버트 번스의 초상화 이미지는 하나의 브랜드이자 아이콘 역할을 한다. 초상 이미지는 위스키 브랜드의 라벨이나 문화 행사의 포스터에 자주 등장하며 기념품과 상품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된다. 레스토랑의 메뉴에서부터 관광 상품까지 상품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 번스를 활용하는 사례는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일상적이다. 특히 지역 음식이나 위스키 생산 지역에서 로버트 번스는 민족시인으로서 강력한 힘을 가지는 스토리텔링의 주요 소재로 활용된다. 이는 민족적 정체성과 연대의 의식을 활용해 소비의 단계까지 이르게 하는 것으로 번스를 활용한 것이다.

그랜트 맥크래켄은 그의 저서 『문화와 소비』에서 어떤 하나가 다른 하나와

문화적 연결성을 가지면서 이 “연속성”을 통해 또 다른 소비로 이어지는 현상을 ‘디드로효과(Diderot effect)’로 연결 지었다(맥크래켄, 1996, 264면). 이는 문화가 소비를 통제하는 주요 수단<sup>24)</sup>임을 보여준다. 이렇게 소비된 상품들은 각각의 내적인 문화적 일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다. 그러므로 구매하는 상품들의 기능적 연관성이 없더라도 하나의 아이콘을 중심으로 하여 추가적인 소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전통을 이어온 통일성과 그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문화의 정체성은 번스의 기념일을 기억하고 의상을 갖추고 전통주를 소비함으로써 공간의 제약 없이 전파된다. 로버트 번스가 시로 노래하며 지키고자 했던 위스키를 소비하고 현대에는 쓰이지 않는 고어인 스코트어로 된 시를 낭송하는 것은 스코틀랜드인들에게 역사의 한편이 아닌 살아있는 언어이자 일상이라는 점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다.

번스의 작품 중 대표적인 작품으로 전통 민요시에서 유래한 ‘올드 랭사인(Auld Lang Syne)’과 ‘붉고 붉은 장미(A Red, Red Rose)’, 그리고 번스가 직접 창안하여 쓴 창작 민요시 ‘샌터의 탬(Tam o' Shanter)’이 있다. 인쇄술이나 녹음기술이 없었음에도 구전형식으로 서민의 노랫가락을 통해 다음 세대로 전달되었다. 인위적이거나 세련된 어휘보다 자연스러운 “일상의 어휘”를 선택한 번스의 자유에의 추구가 잘 드러나 있다(유영숙, 2012).

이상호와 오동욱의 연구에서 대부분의 정체성은 개인 또는 집단이 경험한 공간에서 오랜 기간 이루어진 “문화적 행위 양상”에 의해 결정되며, 정체성 관련 담론은 ‘문화’와 관련하여 ‘문화정체성’ 담론으로 이어진다. 특히 보편성을 기반으로 세계화(globalization)의 논리 앞에서 각각의 지역 또는 나라에서 이루어진 특수한 문화의 보존과 가치를 논의할 때 ‘문화정체성’이라는 개념이 부여된다. 세계화, 지구화의 흐름에서 “문화의 전지구화”로 이어지는 현재, ‘문화정체성’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이상호, 2012). 따라서 번스 나잇을 통해 그들만의 전통을 통합과 연대의 힘으로 또한 자신들만의 생명력을 불어넣어 진정한 영국인의 후예를 위한 길을 만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영국

24) 그랜트 맥크래켄, 이상을 역, 『문화와 소비』, 문예출판사, 1996.

의 정체성이며, 스코틀랜드의 기질인 것이다.

물론 킬트와 위스키만으로 전 세계 영국인을 민족적 정체성으로 묶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온라인 인터뷰를 통해 번스 나잇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다.

Miller 씨는 로버트 번스의 시를 문학작품의 하나로써는 충분히 기념하지만, 번스 서퍼나 번스 나잇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고 이에 대한 근거로 스코틀랜드 내에서도 ‘잉글랜드 왕실과 여왕에 대한 시선이 갈린다’는 의견이 있었다.<sup>25)</sup> Ormsby 씨와의 인터뷰<sup>26)</sup>에서는 이와 다른 해석이 있었다. 번스를 개인적 존재로서 기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코틀랜드 문화에 대한 그의 ‘공헌을 기리는 날’로 표현했다. 영국 여왕과 왕실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이는 스코틀랜드 독립에 대한 시선으로도 연결되며, 번스 나잇을 독립의 날로 기억할지, 낭만주의를 이끈 한 시인의 생일로 남을지에 대한 것은 문화 향유자의 해석으로 달라질 수 있다. 로버트 번스의 문학 작품이 과연 어떤 요인으로 스코틀랜드인의 기질과 정체성을 하나로 결집하는지는 본고에서는 다루지 못한 부분으로 이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

25) Danny Miller와의 인터뷰, 2020년 12월 22일. “I don't really celebrate Burns Supper. It is not that big a celebration. [...] Scotland is very divided. Many like the queen. Many dislike England and the monarchy completely.” D. Miller는 스코틀랜드 출신 바이올리니스트로 스코틀랜드, 오스트리아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연주기획자이다.

26) Craig Ormsby와의 인터뷰, 2020년 12월 22일. “We wouldn't normally use the word celebrate, but it is a kind of small celebration. We honour his memory/life/what he gave us. But you could also say we celebrate his contributions to Scottish culture, rather than celebrate him specifically. I think everyone except Rangers fans and some old people hate the Queen. Most people don't like her, or at least don't see any reason why she should still be here. If we gain independence, we're not interested in keeping her.” C. Ormsby는 스코틀랜드 출신 클래식 기타리스트이자 현재는 일본어와 영어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 4. 번스 나잇의 의미와 전승양상

로버트 번스는 재능 있는 시인이자 작사가였다. 그는 작품을 통해 영어와 스코트어(Scots)의 유쾌한 사용으로 인간의 존재와 삶을 탐험하고자 했다. 그의 작품은 마음을 움직이고 스코틀랜드를 포함한 전 세계의 독자들의 마음을 울렸다. 그는 ‘농부의 시인(the Ploughman Poet)<sup>27)</sup>’이라고 불릴 만큼 순수하고 때 묻지 않은 스코틀랜드의 자연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순박한 사람들의 삶을 노래했다.

그렇다면 왜 로버트 번스가 스코틀랜드인의 정체성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을까? 수 세기에 걸친 영국 연합의 역사 속에 그 실마리가 있다.

13세기 에드워드 1세가 잉글랜드의 국력을 바탕으로 스코틀랜드에 대한 지배권을 드러내면서 침략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스코틀랜드의 민족정체성이 강화되었다. 이후 잉글랜드에 맞선 독립 전쟁을 겪으며 그들은 잉글랜드와는 다른 존재로서의 스코틀랜드의 정체성<sup>28)</sup>이 형성되었다.

스코틀랜드 의회와 잉글랜드 의회를 통과한 1707년 연합법(Acts of Union 1707)<sup>29)</sup>이 발효된 이후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가 합병되어 그레이트브리튼 왕국이 되었다. 그 후 스코틀랜드인들은 잉글랜드와의 문화적 결합에 대해 자신들만의 권리를 드러내고자 했다. 1603년 스코틀랜드 왕 제임스 스튜어트(제임스 6세, James VI)가 잉글랜드 왕(제임스 1세, James I)으로 취임하며 영국 왕실에 통합되었다. 연합왕국의 수립 이후 200년이 지난 시기임에도, 로버트 번스는 꾸준히 스코틀랜드어로 작품을 써나가며 스코틀랜드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내고자 했다.

번스의 문화적 표상으로서의 위상은 정치적 목소리와 결합하여 서로

27) Amy Hurst, 2017년 1월 25일, Explore Shakespeare, 블로그, 셰익스피어 생가 신탁 홈페이지 <https://www.shakespeare.org.uk/explore-shakespeare/blogs/william-shakespeare-and-robert-burns-whaurs-yer-wullie-shakespeare-noo/> (검색일자: 2021년 4월 20일)

28) 이상동, 「민족 상징물의 기원」, 『역사학보』, 240, 2018, 611-36면.

29) 탁양현, 『영국 역사,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아일랜드 그레이트브리튼』, e 퍼플, 2020.

의 결속력을 강화한다. 그에 대한 지속적인 학문적 연구를 통해 신화적 상징을 넘어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했다. 영국, 특히 스코틀랜드 지방에서는 모두가 번스 나잇을 즐기며 이날은 그들의 정체성과 통일성을 보여준다. 스코틀랜드인, 나아가 영국인의 기질을 보여주며, 기억을 공유하는 힘을 느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독립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열사나 투사를 기억하는 방식이 있다면 그것은 국경일마다 국기를 게양하거나 기념식을 통해 추념하는 것이 된다. 영국의 경우에는 우리와는 달리 생활 속에서 개인을 기념하며 소환한다. 수백 년간 부침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대에 걸쳐 지켜온 그들의 정체성과 삶의 흔적이 1월 25일의 축제와 자축 연으로 이어진다. 그것이 영국과 스코틀랜드인들이 문화와 역사를 소비하는 방식이다.

번스 나잇을 영국 국경 내로 한정되지 않고 스코틀랜드인이 이주한 나라 세계 곳곳에서 그를 기념한다면 어디에서든 즐기는 것이 가능하다. 법적으로 위스키가 밀주로 여겨진 시대에 시어로라도 기록에 남기고자 했던 로버트 번스를 기억하며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수 세기 동안 지켜온 전통에 대한 자부심과 오늘날 다원주의의 흐름 속에서 모호해질 수 있는 민족정체성을 일깨워주는 하나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기에 그 의미가 있다.

## 5. 나오는말

번스 나잇의 자리에 모이는 사람들은 갖춰 입은 의상과 로버트 번스를 기억하는 시를 낭송하며 마시는 위스키를 통해 민족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기억을 공유하며 공감한다. 번스 나잇이라는 시간과 공간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갖춤으로써 참여자를 이용하여 소속감과 연대 의식을 느끼게 하고 세대를 넘어 소환되는 로버트 번스가 민족적 정체성을 넘어 문화적 브랜드로 소비되고 문화콘텐츠의 가치와 자산으로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번스 나잇에 대한 정치적 또는 역사적 견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스코틀랜드인은 민족과 국민의 개념을 구분 짓는다. 영국 연합에 대해 통합의 의미로 긍정적인 해석을 한다면 번스 나잇을 한 지역의 낭만시인의 작품을 낭송하는 날로 기억하겠지만, 스코틀랜드 독립에 지지하는 이들은 번스 나잇을 민족정체성을 드러내고 독립의 의지를 번스의 시를 낭송하며 전통의상을 갖추므로 정체성을 드러내는 기념비적인 시간으로 여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적 유산을 한 국가 안에서 민족의 구분으로 배타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은 문화적인 손실일 수도 있다. 브렉시트(Brexit)<sup>30)</sup>가 통과된 오늘날의 영국의 여건에서, 앞으로 유럽연합과의 경쟁 우위에 대한 차별화는 필요한 부분이다. 영국은 공식적으로 네 개의 독립적인 지역이 연합한 왕국이라는 특성과 더불어 영연방이라는 또 다른 국가 연합으로 연결되어 있다. 영국 본토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이주한 ‘디아스포라’도 다양할 것이다. 번스 나잇은 이를 묶어 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고 문화 자산의 경쟁력 확보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스코틀랜드의 대표적인 낭만 시인인 로버트 번스의 작품 자체에 주목한 후속 연구에 대한 가능성도 열려 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스코틀랜드의 상징이자 아이콘으로 자리하며 끊임없이 번스 나잇을 통해 로버트 번스를 소환하고 있으나, 스코틀랜드의 대표적인 민족시인으로서의 그의 모습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 때문이다. 이를 위해 영국 University of Glasgow에서는 ‘Centre for Robert Burns Studies’를 설립하여 잊혀진 로버트 번스의 작품과 노래를 발굴하고 연구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2012년에 설립된 영국의 디지털 교육 플랫폼 ‘FutureLearn’을 통해서도 전 세계 누구나 접속하여 학습하고 연구 업적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끊임없는 아카이빙을 지속하고 이를 무료로 공개하고 있다.

그의 작품은 순수하고 때 묻지 않은 스코틀랜드의 자연과 그 속에 살

30)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뜻하며, 한국 시간 기준 2020년 2월 1일 오전 8시, 영국은 EU의 초석인 유럽경제공동체(ECC)에 합류한 지 47년 만에 EU를 공식 탈퇴하였다.

아가는 순박한 스코틀랜드 사람들을 잘 표현했다는 가치가 있다. 한국인들에게 ‘석별의 정’으로 더욱 익숙한 번스의 시 ‘올드 랭 사인’의 한 구절에서 잘 드러난다.

‘We twa hae run about the braes, and pu’d the gowans fine’

(‘We two have run about the slopes, and picked the daisies fine’)

(우리 둘은 언덕을 뛰어 돌아다녔지, 그리고 야생 데이지 꽃도 꺾었어, 근사했지.)

전통의상에 사용된 가문을 상징하는 타탄체크는 버버리(Burberry),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와 같은 영국의 대표적인 패션 브랜드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기에 이제는 계급이나 계층을 구분 짓는 소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통의상으로 민족정체성을 드러내듯 현대에 와서는 개개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은 현대인의 소비 패턴과 인식의 변화와 함께 향후 연구과제로 다룰 가치가 충분하다. 번스 나잇에 활용되는 로버트 번스의 문화적 가치를 활용한 상품 사례 연구를 통해 전통적 소재가 현재에는 어떤 의미로 활용, 변화되는지에 대한 연구도 기대할 수 있다. 이처럼 역사 속에 가려진 숨은 원석을 찾아 문화콘텐츠의 소재 발굴을 통해 보석으로 다듬을 가능성까지 기대해 본다.

[ABSTRACT]

## Transmission and Development of ‘Burns Night’ from the perspective of Cultural Enjoyment

Jin, Hyein & An, Namil(Korea University)

In this paper, we would like to examine how Burns Night which is the birthday of the national poet of Scotland, Robert Burns, has been enjoyed and consumed in the aspect of Cultural Enjoyment since the 18th century to summon up and celebrate Burns. Burns Night is an event to remember and commemorate Robert Burns, a Scottish romantic poem. The most recognizable symbol of Burns Night is the kilts, a traditional attire. It shows that the Clan System is maintained as a tradition formed for group unity and identity formation. Burns Night starts with the performance of a bagpipe, a traditional instrument, and people recite and sing Burns’ poems along with traditional food, haggis, and traditional liquor, whiskey. Whiskey was consumed as a symbol of resistance even during the English rule, and Burns was at the center of it. The portrait of Burns represents Scotland and is used as material for storytelling beyond a cultural brand. G. McCracken connected the phenomenon of moving from tradition to consumption by using national identity and solidarity as the “Diderot effect”. Leading consumption by cultural connectivity shows that culture can control consumption. It shows the possibility of expanding into the value and asset of cultural consumption as one of cultural enjoyment beyond

national identity. Through case studies on the cultural value of Burns, it is expected to explore ways to develop cultural contents such as using them as traditional products and icons in future research.

**Key words** : Robert Burns, Burns Night, Kilts, Whiskey Label, Cultural Enjoyment, Cultural Consumption, Diderot Effect

## [참고문헌]

### ■ 단행본

그랜트 맥크래켄, 이상을 역, 『문화와 소비』, 문예출판사, 1996.  
에릭 홉스봄, 박지향, 장문석 역, 『만들어진 전통』, 휴머니스트, 2011.  
탁양현, 『영국 역사,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아일랜드 그레이트브리튼』, e퍼플, 2020.

### ■ 논문 및 기타 자료

유영숙, 「영국 낭만주의 시대의 창작 민요시 연구 : 주제와 문체의 특징을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2.  
김경화, 나지영, 「체크 패턴이 소비자의 감성이미지와 브랜드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디자인포럼』, 43(0), 2014, 367-78면.  
김은미, 권경은, 「문화자본과 확장된 ‘문화소비’」,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69호, 2015, 111-38면.  
서우석, 이호영, 「네트워크화된 문화소비자와 문화자본」.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7(1), 2010, 93-137면.  
송미경, 「Scottish kilt의 형태 변화에 관한 역사적 고찰」, 『복식』 제47권, 1999, 5면.  
이상동, 「민족 상징물의 기원」. 『역사학보』, 240, 2018, 611-36면.  
이상호, 오동욱, 「문화정체성 담론과 경북정체성 연구」, 『대구경북연구』 11권 2호, 대구경북연구원, 2012, 147-57면.  
이영석,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국민 정체성」, 『대구사학』 vol.66, 대구사학회, 2002, 53-77면.  
정병기, 「스코틀랜드의 영국 잔류 선택과 분리 독립 운동의 전망: 복합적 지역주의에 따른 분권적 자치」, 『한국정치연구』 제24집 제1호, 2015, 355-82면.  
조의행, 「스코틀랜드 민족정체성 연구」, 『현상과인식』, 41(4), 2017, 109-39면.  
Adell, Nicolas, et al, Between Imagined Communities of Practice : Participation, Territory and the Making of Heritage. Göttingen Studies in Cultural Property, Volume 8, Göttingen University Press, Göttingen, 2015. 7-21면. <<http://books.openedition.org/gup/208>>.  
Bhandari, K., 「6. The Scottish Nation in the Cultural Heritage of Robert Burns」, 『Tourism and National Identity: Heritage and Nationhood in Scotland』, Blue Ridge Summit: Channel View Publications, Bristol, 2014. 95-113면.  
Coombes, Emma and Hibbert, Sally A. and Hogg, Gillian M. and Varey, Richard,

- 『Consuming Identity: the case of Scotland』,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Volume 28 (1), Valdosta, GA, 2001. 328-33면.
- Dolan, T. C. S.. 「Chapter 2 - Malt whiskies: raw materials and processing」, Editor(s): Inge Russell, Inge Russell, Charles W. Bamforth, Graham G. Stewart, 『Handbook of Alcoholic Beverages, Whisky』, Academic Press, Cambridge, MA, 2003. 27-73면.
- Kinghorn, A. M., The Literary and Historical Origins of the Burns Myth, Dalhousie Review, Volume 39, No. 1, Ottawa, 1959. 76-85면.
- McClure, J. Derrick, 「Scots for Shakespeare」, 『Shakespeare and Scotland』, edited by Willey Maley and Andrew Murphy, Manchester UP, Manchester, 2004. 218면.
- Rigney, Ann, 「Embodied Communities: Commemorating Robert Burns, 1859」, Representations, Volume 115, No. 1, California UP, California, 2011. 71-101면.
- 양윤경, 「이번 시즌, 핫 아이템 '타탄체크」, 『중앙일보』 2013년 9월 27일, 검색일자 2021년 12월 1일.
- 윤덕노, 「원래 약이던 술... 중세까지 고부가가치 의약품 소주·위스키 등 증류주는 모두 생명수」, 『매일경제』 2019년 5월 8일, 검색일자 2021년 12월 1일.
- [로버트 번스, 윈스턴 처칠, 마가렛 대처... 재미있는 위스키 일화], 싱글몰트 맥칼란 공식 블로그,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themacallan&logNo=220316208389&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검색일자 2021년 5월 2일.